

사회복지시설의 경영 선진화 기대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시범사업 워크숍

기사 : 김수연 객원기자
자료제공 : 서울복지재단

서울복지재단은 4월 1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시범사업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재단에서 발표한 사회복지시설 표준 경영모델 개발 및 경영컨설팅 매뉴얼 개발을 토대로 경영컨설팅 모형 발표와 함께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주간·단기보호 시설에 대한 컨설팅 사례와 필요성들이 제시 되었다. 100여명의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복지재단



까지 76개 장애인고용사업장에 경영컨설팅 지원을 실시한 결과 장애인 고용이 8.6%가 증가하였다. 이는 이러한 경영컨설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윤 연구원은 설명하였다.

이어 순애시니어타운의 오은진 원장은 노인요양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경영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서비스

연구개발부 윤희숙 책임연구원의 '컨설팅 시범사업에 대한 개요' 및 '경영컨설팅 모형'에 대한 주제발표와 순애시니어타운 오은진 원장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영 효율 향상을 위한 접근방법',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정진도 관장의 '지역사회 재활기관·시설에 대한 컨설팅 적용' 사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윤희숙 서울복지재단 연구개발부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사회복지시설이 양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양 중심의 복지'에서 '질 중심의 복지'로의 체계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 경영 기법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및 민간자원 활용의 증가, 인력의 전문성 및 품질관리의 중요성 증가, 복지시설 경영 전반에 걸친 전략적 기획

의 중요성 증가, 제한된 인적 및 물적 자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의 중요성 증가 등이 요구되어지고 있다"며 이번 시범 사업의 개요에 대해 설명하였다.

윤 연구원은 우리나라 서울시 소재 670개소 복지시설에 사회복지시설의 경영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05년 개발된 경영컨설팅 매뉴얼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확대 보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구성요소로는 경영자의 리더십을 꼽았으며 경영의 어려움으로는 재정적 어려움을 꼽았다. 또 복지시설에 경영마인드가 필요한가에 응답에는 94%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으며 전체적으로 컨설팅 경험은 낮으며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혹은 '1~2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72%로 조사되었다. 또한 2005년 4월~12월

를 높이기 위한 경영전략은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보다는 클라이언트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확보해 주고, 그것을 정부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실현시켜줄 수 있는 경영 컨설팅이 된다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컨설팅 시범사업은 올해 3개 복지시설 유형(노인요양시설, 노인주간·단기보호시설,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의 각 1개 시설, 총 3개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컨설팅 시범시설로 선정되면 5~6주에 걸쳐 전문 경영컨설팅팀이 인적자원·지역사회관계·재정회계·시설환경·리더십 등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수행한다. 